

‘세계선수권 은메달’ 이해인·차준환, 금의환향

피겨 팬들 몰려... 등장에 환호성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반 입상에 성공한 차준환(22·고려대)과 이해인(18·세화여고)이 나란히 은메달을 걸고 금의환향했다.

차준환과 이해인은 27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는 수십 명의 피겨 팬이 몰려들어 세계선수권을 마치고 귀국하는 차준환과 이해인, 김채연(수리고)을 기다렸다. ‘사랑해요 차준환’이라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온 팬도 눈에 띄었다.

차준환과 이해인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피겨 팬들은 아낌없이 환호성을 보냈다. 차준환의 팬들은 다함께 ‘사랑해요 차준환’을 외치기도 했다. 차준환은 인터뷰를 마친 뒤 피겨 팬들에게 둘러싸여 짧게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차준환은 팬들과 함께 간단한 팬 미팅 시간을 가졌다.

차준환과 이해인은 지난 26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끝난 2023 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피겨 세계선수권에서 동반 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이전까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수확한 한국 선수는 ‘피겨여왕’ 김연아(은퇴)가 유일했다. 김연아는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통산 6개(금 2개·은 2개·동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김연아가 201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세계선수권에서 포디움에 오른 한국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대회에서 유영(수리고)이 여자 싱글 5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차준환과 이해인이 나란히 2위를 차지하면서 10년 만에 한국 피겨에 세계선수권 메달을 안겼다.

이해인은 이번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에서 개인 ISU 공인 최고점인 220.94점을 획득,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224.61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국제빙상연맹 남녀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해인(사진 왼쪽)과 차준환이 27일 서울 김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해인, 메이저대회 연속 입상으로 시즌 마무리  
“초반에 잘 풀리지 않았지만, 끝까지 달려 보람있다”

차준환, 세계선수권 출전 남자 싱글로선 ‘최초’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메달 목표 삼고 있어 만족”

소프트프로그램에서 73.62점으로 2위에 올라 메달 기대를 부풀린 이해인은 프리스케이팅에서도 큰 실수 없는 연기를 선보여 147.32점을 받았다.

지난달 또 다른 시니어 메이저대회인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2009년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건 이해인은 세계선수권에서 다시 한 번 쾌거를 일궜다.

2022~2023시즌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 3차 대회에서 연달아 4위에 머물러 아쉽게 메달을 놓쳤던 이해인은 메이저대회 연속 입상으로 아쉬움을 떨쳐내며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차준환도 이번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에서 296.03점을 얻어 일본의 우노 쇼마(301.1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소프트프로그램에서 99.64점으로 3위였던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

벽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여 196.39점을 획득, ISU 공인 개인 최고점(종전 292.38점)을 갈아치우며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세계선수권 메달을 딴 것은 차준환이 최초다. 2021년 세계선수권 10위에 올라 한국 남자 선수 사상 첫 ‘톱10’ 진입을 이뤘던 차준환은 이번 은메달로 또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차준환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소프트프로그램 17위에 그친 뒤 부츠 문제 때문에 프리스케이팅 출전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번 대회 은메달로 눈물을 닦아냈다. 지난해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아쉬움도 달랐다.

귀국 후 이해인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다. 입국장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해인 “세계선수권은 이번 시즌에 가장 출전하고 싶은 대회였다. (세계선수권 대표 선발전인)종합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세계선수권에 나가게 돼 좋았고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

이해인은 “잠시 내에 대해 의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4대륙선수권과 세계선수권을 통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시즌 초반에 잘 풀리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보람있다”고 말했다.

입국장에 들어서 후 인파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보였던 차준환은 “생각보다 많이 해주셨다.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 준 분들도 많았다. 덕분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한국 남자 선수 최초 라는 수식어에 대해 차준환은 “나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세계선수권은 선수로서 항상 메달을 목표로 삼던 대회라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인 세계선수권에서 스스로 만족할만한 경기를 펼친 것이 가장 기분좋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차준환과 이해인이 선전하고 여자 싱글의 김채연도 6위에 오르면서 한국 피겨는 내년 세계선수권 남녀 싱글 출전권을 3장씩 확보했다.

ISU는 세계선수권에 한 국가에서 2명 이상이 출전한 경우 상위 2명의 순위를 합친 숫자가 13 이하이면 차기 세계선수권 출전권 3장을 준다. 14~28 사이이면 2장, 29 이상이면 1장이 돌아간다.

한 국가에서 1명이 출전해 2위 내에 들면 다음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3장 부여하고 10위 이하이면 2장, 11위 이하이면 1장을 배분한다. /뉴시스



전북 아·태 마스터스

자원봉사자 면접 심사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 24~26일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자원봉사자 선발(접수인원 531명)을 위한 면접 심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면접심사는 일반봉사자 132명과 통역봉사자 399명(영어 256명, 중국어 108명, 일본어 35명)으로 나누어 면접이 진행됐으며, 통역봉사자의 경우 국제대회의 특성상 레벨테스트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일반 및 통역봉사자는 4월 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해 5월 10일부터 △해외참가자, 출입국(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지원, △등록센터, △문화행사, △공·폐회식, △경기장운영 등 11개 분야에서 5월 22일까지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참가선수단 및 관람객에게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고영호 이사장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 국제대회 등의 경력을 토대로 올해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및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챔피언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장기 전국오픈 탁구대회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서 제14회 남원시장기 전국탁구대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선수 및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걸고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이며, 친목의 시간을 가지는 훈훈한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경기방식은 단체전 개인 단식 조별리그를 통해 11점 5진 3선승제로 예선을 진행해 본선에서 토너먼트 11점 5진 3선승제로 우승자를 가렸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남원시장기 전국오픈탁구대회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탁구는 현대인들의 체력 유지와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스포츠 스포츠에도 매우 좋은 운동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탁구를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4월에도 실업농구대회, 남원코리안오픈국제 볼러대회, 전국 실버야구대회, 문체부장관배 초등태권도대회 등이 개최돼 스포츠 명품도시 남원시의 체육 열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자프로농구 6개 구단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KB이 오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6개 구단 감독을 비롯해 변준형(인양KGC), 이관희(창원 LG), 김성현(서울 SK), 류제이(아리엔트스울산 현대 모비스), 이정현(고양 캐롯), 허웅진(주 KCC)가 참석해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출사표와 각오를 밝힌다. 아울러 KBL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정된 사전 팬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는 TV,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뉴시스

테니스 U-14 여자대표팀

월드주니어 본선 진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서 준우승 차지

U-14 남자대표팀, 지역 예선 참가 위해 출국

한국 14세 이하(U-14) 여자테니스 대표팀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에서 준우승해 본선에 진출했다.

조윤정 감독(성크루아카데미)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막을 내린 2023 ITF 월드주니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결승에서 일본에 0-2로 졌다.

주예성(성크루아카데미), 오지윤(양주DTA), 홍예리(서울양정초)로 구성된 대표팀은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 4강에서 호주를 차례로 꺾었다.

결승에서 패배했으나 최종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ITF 월드주니어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다.

한편 U-14 남자 대표팀도 ITF 월드주니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참가를 위해 25일 말레이시아 쿠칭으로 출국했다.

김이숙 감독(최주연아카데미)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김동민(재이원테니스아카데미), 김원진(안동중), 조민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으로 이뤄졌다. 남자 대표팀은 태국, 키르기스스탄,



한국 14세 이하(U-14) 여자 테니스 대표팀.(사진 왼쪽부터 후예성 오지윤, 홍예리, 유정성 트레이너.) (사진=대한테니스협회 제공)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A조에 속해 3일간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후 각 조 2개국이 8강에 진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출국을 가리며 상위 4개국이 본선 진출권을 얻는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해 월드주니어 지역 예선에서 우승하며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는 최종 8위에 올랐다. /뉴시스

김진수, 대표팀서 부상... 전북현대도 ‘울상’

콜롬비아전서 허리골절 부상... 최소 6주 이상 출전 불가능할 듯

시즌 출발부터 암울한 전북현대, 핵심 자원 이탈로 고민 깊어져

축구 국가대표 왼쪽 수비수 김진수(31·전북)가 허리 골절상으로 최소 6주 이상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즌 초반 고전하고 있는 소속팀 전북 현대도 울상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4일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한 김진수 선수는 정밀검사 결과, 요추 2번 좌측 횡돌기(Transverse Process) 골절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팀 의료진 소견으로는 대략 6주의 치료와 휴식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 2개월 뒤에 경기 출전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의

한국 사령탑 데뷔 무대였던 콜롬비아전에서 공을 경합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던 김진수는 결국 들것에 실려 퇴장했다. 전반 24분 교체됐다.

2014 브라질월드컵,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최종엔트에서 낙마한 이른 기억이 있어 김진수의 부상은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김진수는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을 통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았다.

오는 28일 우루과이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김진수를 대신해 실영우(울산)를 불러들였다. 김진수의 큰 부상으로 K리그 소속팀 전북 역시 울상이다.

K리그1 등록선수, 평균 38.8명

전북·대전 46명으로 최다

프로축구 K리그1 선수 등록 결과 지난해 우승팀인 울산현대가 가장 적은 수의 선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4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경기 선수 등록을 마감한 결과 K리그1 12개 구단의 구단당 평균 인원은 38.8명이다.

전북과 대전이 4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등록했다. 반면 지난해 우승팀 울산이 31명으로 가장 적었다.

K리그(2부) 13개 구단의 구단당 평균 인원은 35.4명이다. 부산이 45명으로 최다, 충주아이언이 30명으로 최소 인원을 등록했다. 전체 등록 선수는 K리그1 465명, K리그2 460명으로 합계 925명이다. 이

전북에 K리그1 역대 최초로 6연패에 도전했다가 울산 현대의 벽에 가로 막힌 전북은 심기일전해 이번 시즌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러나 시즌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이 출부상을 당하고 있다.

아침차게 영입한 공격수 이동준과 일본 출신 미드필더 아바노 준이 부상으로 앞서 이탈했는데 수비의 한 축을 책임지는 김진수마저 쓰러진 것이다. 김진수는 팀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만큼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진다.

출발부터 암울한 분위기다. 경쟁자 울산(4승 승점 12)이 개막 4연승으로 단숨에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북은 1승무패(승점 4)로 8위까지 처졌다.

‘낙공(다치고 공격)’ 축구도 실종됐다. 전북은 4경기에서 4골로 경기당 한 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김상식 전북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